

제초제 Dicamba에 의한 급성신부전이 동반된 횡문근융해증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신장연구소

진규복 · 광충환 · 성정훈 · 홍수희 · 이기태 · 황은아 · 한승엽 · 박성배 · 김현철

서 론 : Dicamba는 2-methoxy-3,6-dichlorobenzoic acid로 중독등급 3급인 식물성 호르몬 제초제이다. 음독시 근육세동, 경직, 위축, 미오글로빈뇨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국내에는 아직 Dicamba 음독에 대한 증례보고가 없어 Dicamba 음독후 급성신부전이 동반된 횡문근융해증을 경험하고 이를 보고한다.

증 례 : 환자는 58세 남자로 자살목적으로 Dicamba (반벨) 300 mL를 마신후 4시간만에 혼수상태로 발견되어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과거력 및 가족력상 특기사항은 없었고, 이학적 소견상 혼수상태였으며 혈압은 110/70 mmHg, 맥박수 115회/분, 호흡수 30회/분, 체온 37.2℃였고 이외 특이할만한 이상소견은 없었다. 혈액검사상 백혈구 18,060/mm³, 혈색소 15.9 g/dL, 혈소판 431,000/mm³ 이었다. BUN 27 mg/dL, 혈청 creatinine 2.5 mg/dL, 동맥혈검사상 pH 7.1, 이산화탄소분압 75 mmHg, 중탄산염 27 mEq/L, 산소포화도 85% 이었으며 나트륨 149 mEq/L, 칼륨 4.8 mEq/L이었다. 혈청 myoglobin 3,260 ng/mL, creatinine kinase (CK) 984 U/L, 요 myoglobin은 음성이었다. 기도삽관후 인공호흡기 치료와 일반적인 약물중독에 준한 치료를 하였다. 입원 3일째 혈청 myoglobin 15,578 ng/mL, CK 24,640 U/L까지 증가되고 핏뇨를 보이며 혈청 creatinine이 6.9 mg/dL로 증가하여 혈액투석을 시작하였다. 입원 5일째 의식상태가 회복되고 폐부종이 호전보여 기도삽관을 제거하였다. 혈액투석을 6차례 시행하는 동안 입원 12일째부터 일일 1,000 mL 이상 요량이 증가 되었고 입원 20일째 혈청 creatinine 3.2 mg/dL, 혈청 myoglobin 194 ng/mL, CK 153 U/L로 감소되어 퇴원하였다. 퇴원 후 2개월이 지나 외래에서 검사한 혈청 creatinine, myoglobin, CK는 모두 정상이었고 특별한 후유증은 없는 상태였다.

